

## 포천출신 전재연 선수 세계 제패

### 코리아오픈국제배드민턴대회 頂上

포천 배드민턴의 희망 전재연(23·한국체대)선수가 지난 달 30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개최된 2005년 대교 눈높이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9위인 전재연 선수는 세계랭킹 8위의 홍콩의 왕첸을 세트스코어 2대0(11-7, 11-8)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재연은 1세트에서 절묘한 헤어핀과 드롭샷을 앞세워 9-4까지 리드를 잡은 뒤 강력한 대각선 스매싱으로 왕첸을 제압했다.

또 2세트에서는 계속된 집적속에 드롭샷이 네트를 맞고 상대방으로 떨어지는 등 행운까지 전재연 선수의 몫이었다.  
 한편 지난해 4명의 스타 대회인 아시아선수권대회 정상을 차지했던 전재연 선수는 1996년 방수현 선수가 코리아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후 9년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대회 최고 등급인 6명의 스타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맞이했다.  
 또한 전재연 선수와 왕첸 선수의

상대전적은 6연패 뒤에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에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전재연 선수의 금을 포함, 혼합복식의 이재진(원광대)-이효정(삼성전기) 조, 여자복식의 이경원(삼성전기)-이효정(삼성전기)조가 대회 정상에 올라 5개의 금메달 중 3개를 획득 김동문(삼성전기)-나경민(대교눈높이) 조의 뒤를 이어 배드민턴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전재연선수가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개최된 2005년 대교 눈높이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 인터뷰 2 종목별체육회장

### 포천시탁구연합회 이기양 회장

#### 탁구인구 저변확대와 활성화로 도약하는 한 해

1998년에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시탁구연합회는 200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임원 및 회원 모두는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포천시탁구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탁구발전의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양(56·사진) 회장을 만났다.  
 탁구연합회는 현재 생활체육동호회 회원 150명과 임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기양 포천시탁구연합회 회장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고심중이다.  
 "탁구인들만의 힘으로 학교 탁구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다"며 "포천시와 포천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탁구부 창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유철현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동남고와 일부초등학교 등 학교 체육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며 "신중하게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연계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탁구가 직업으로서도 매력에 있는 것은 실업팀 진출 등 진로선택에도 위험부담이 적고 경쟁력도 높아 보전성이 뛰어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이 말하는 탁구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다.  
 "1년 정도는 전문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배양해야 흥미를 갖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며 "탁구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지도자에게 배운 후 입문하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젊은층의 탁구 참여가 아쉽다는 이회장은 "탁구는 보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며, 열량소모를 통한 운동과 두뇌개발을 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에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며 "클럽 발전과 더불어 발전된다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제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포천 동남고 출신 유승민 선수가 탁구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를 계기로 탁구의 제2부흥기를 위해 대회 등 선수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구연합회의 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회장.  
 "올해는 탁구인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참여의식고취,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봄과 가을에 탁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탁구연합회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1998년에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시탁구연합회는 200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임원 및 회원 모두는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4년도 포천시탁구인승인식 모습

## 탐방 지역 체육회 ② 관인면 체육회

### 주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전개



관인면 생활체육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분영 체육회장.

게이트볼,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관인면은 비록 포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고의 체육인들 양성을 목표로 체육회와 민민 모두가 화합하고 있다.

(회장 박종태)팀이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배구와 수영, 배드민턴 등은 정식팀은 구성돼 있지 않으나 동호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필요시 소집된다.  
 관인면 체육회는 비록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하지만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김 회장은 "올 10월 민민체육관이 완공될 예정이다"며 "현재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아 많은 종목을 육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체육관 완공으로 장소가 확보되는 만큼 종목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드민턴과 배구, 탁구 등의 실내종목 활성화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며 "체육관 완공시 철원 동승이나 영북면 운전에서 운동하던 체육인들이 관인면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인면 체육회는 평상시 학생들과 대회에 출전하는 생활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의 경우 포천에서 개최되는 대회 출전시 공이나 기구 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인들의 경우 간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작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인면은 게이트볼이 유난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관인면 전체의 인구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된다"

며 "게이트볼 팀이 타지역보다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열정을 갖고 연습하고 대회에 임하기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게이트볼 팀 지원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는 점차 노력화되고 있는 면의 노인복지 정책과 발맞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관인면 체육회는 올해 각종 체육행사지원과 회원단체를 위한 대회를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발전에 원년으로 삼기 위한 두가지 목표를 세웠다.  
 ▶주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전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단체3위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김 회장은 "항상 강팀을 만나 결승 문턱에서 패하는 배구와 게이트볼, 수영 등 일부종목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바 민민체육관이 활성화된다면 많은 종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인면 체육회는 자체 단합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 단합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 여름 개최한 레프팅은 체육회의 단결과 화합이 그만이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스키와 스노우보드 150여명 雌雄겨뤄

포천시의 2005년도 첫 스포츠대회로 스키대회가 개최된다.  
 포천시스키협회(회장 김연태)는 오는 21일 오후 5시에 베어스타운리조트 대강당에서 개최식을 갖고 22일 오전 9시부터 베어스타운리조트 캠퍼온코스에서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스키대회를 개최한다.  
 포천 스키와 스노우보드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동계스포츠를 통해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스키인구의 저변확대 통해 선수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관내 14개 읍·면·동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초등부(저학년부,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군인부 ▶일반부로 나누어 각각 남녀 개인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대회참가자는 알파인 대회전과 스노우보드 대회전 종목으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오는 17일까지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스키협회에 참가비 1만원과 신청서를 작성,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스키협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상해 스포츠보험에 가입해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포천시체육회 : 031-531-8588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스키대회를 개최되는 베어스타운.

~ 그녀는 행복한 악어다 ~

**"여성 크로커다일 "2005년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영예"**

**여성 어덜트케주얼 선두주자 크로커다일 레이디 상설매장 '송우점'**

지역 밀착형의 대리점유통, 합리적인 가격, 트렌드를 수용한 디자인, 높은 퀄리티

2005년 신년맞이 "행복 선물가전"

찾아오시는길

◇ 고객만족도 1위 상품 선정 ◇      포천시 이동교리 74-1 Tel. 031-541-7563 대표 전 영 심